

+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신한 Value-Up +++

신한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6.04



Disclaimer

- 본 자료에 기재된 영업실적과 재무정보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K-IFRS에 따라 작성한 연결 수치입니다.
- 본 자료는 당사에 관한 정보제공 목적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당사가 그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나 의견의 공정성, 정확성 또는 완결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사전 고지 없이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주식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본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 또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 등 당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도 본 자료 및 본 자료에 근거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당사에 가용한 정보를 기초로 당사의 경영현황 및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무실적, 사업전망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정보는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가정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장래 시장상황, 경영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예측정보에 의하여 예정된 바와 중대하게 다른 결과가 초래될 위험 및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예측정보의 정확성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본 자료 제공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의 변경 없이 사용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단, 출처는 반드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정보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 Value-Up Triple Plus

신한은 **속도감 있는 기초체력(ROE) 제고 노력과 더불어 직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주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한 Value Up **+++**

ROE 10%+

ROTCE 11.5%+, 속도감있는 개선

- COE 이상의 ROE 목표 달성
- ROC 실행방법론¹⁾을 통한 ROE 제고
- 은행-비은행 배분 및 ROC 계획 제시

**속도감 있는
ROE · ROTCE 제고**

환원을 50%+

상한폐지, 비과세배당* 우선 추진 원칙

*'26년 결산배당~'29년까지

- 신한만의 직관적인 Formula 제시
- 비과세/분리과세²⁾ 고려한 배당정책 추진
- 분기 균등 배당/DPS·배당규모 확대
- 자사주 소각 Mix 통한 주주환원을 확대

**직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주환원정책 추진**

CET1비율 13%+

13.0%~13.4% 구간 관리

- 규제 + 성장 Buffer 등을 고려
- 국내Peer대비 안정적 비율 확보 노력
- CET1 효율화 통한 초과분은 환원 원칙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 CET1 확보**

이사회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행 점검→평가→계획 Update 논의·결의, 통해 추진
 ※ 특정 시점 절대목표 제시 방식 → 매년 지향점 적정성 Gap 분석 통해 3개년 가이던스 제공 예정

※ 상기 정책은 경기 상황 및 규제 변화, 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할 예정

주1) ROE제고를 위한 실행 지표로 ROC(Return on Group Capital, RWA × 13%) 도입하여, 그룹-전사-사업그룹별 성과측정·평가·보상에 활용

주2) 비과세 배당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라 전입되는 이익잉여금 중 비과세 대상인 재원으로 실시하는 배당

분리과세 배당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식에 관하여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한 분리과세 인정

※ ROE: Return on Equity, ROTCE: Return on Tangible Common Equity, COE: Cost of Equity, TBPS: Tangible Book value Per Share, CET1비율: Common Equity Tier1 Ratio

As-Was vs To-Be

'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 (10-50-50)

-특정시점의 Target 설정방식-

단단한 기초체력 (ROE) 제고 노력과 더불어,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ROE
10%

- ROTCE 11.5%, CET1비율 13%+
- ROC 방법론
- PBR-ROE Logic Tree

총주주환원율
50%

- 자사주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정책
- 주당현금배당·배당규모 매년 확대
- 분기균등 배당

주식수
50
백만주 감축

- 향후 3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 '27년말까지 450백만주로 감축
- TBPS 13만원 (연평균 +10%)

※ 이사회 중심으로 논의/결의 통해 추진

New 기업가치제고계획 (Value-Up⁺⁺⁺)

-지속가능한 Dynamic Framework 구축-

속도감 있는 기초체력(ROE) 제고 노력과 더불어,
직관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주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ROE
10%+

- ROTCE 11.5%+, 속도감 있는 ROE 개선
- 은행-비은행 배분 비중 및 ROC 계획 제시 소통
- 신한만의 PBR- ROC Logic Tree

총주주환원율
50%+

- **비과세·분리과세 배당정책 우선 추진**
- 주당현금배당·배당규모 매년 확대-유지
- 분기균등 배당-기조 유지
- **직관적 Formula^주 제시** (ROE, 성장률 고려한 환원율)
주 주주환원율 = 1 - 성장률 / Target ROE
- **상한없는 목표 체계**
- 주주환원Mix (**비과세배당**→자사주) 가이드스 제시

CET1비율
13%+

- 배당성향 고려시 주식수 감축 계획 달성가능
→ '27년 Target은 여전히 지켜나갈 예정이며,
New지향점에 '27년 목표대비 달성도 소통
-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 CET1비율 유지**

신한Value Up⁺⁺⁺

※ 이사회 중심으로 논의/결의 통해 추진

※ 매년 지향점 적정성 Gap분석 통해 3개년 가이드스 제공 예정

2026년

Value-Up : Triple Plus

1. 이행 평가 및 진단

2. 2026 Value-Up 지향점

3. 지향점 설정 상세

- ① ROE 10%+
- ② 주주환원율 50%+
- ③ CET1 13%+

4. 실행 방법론

- ① PBR-ROC Logic Tree
- ② 주주환원 Mix 정책
- ③ 평가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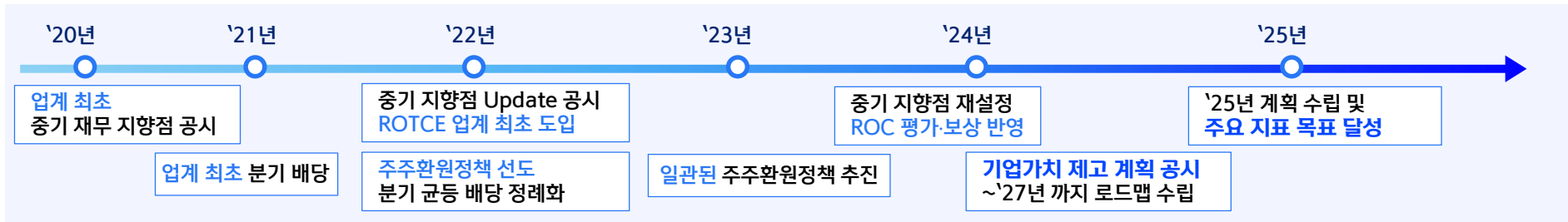
5. 소통 강화

6. 지배구조



SFG Value-Up 경과 ('20년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이후, 2027년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계획을 단계적 실행 계획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 지표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의 실행 성과가 확인됨.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ROE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		FY24	2025년 계획	FY25	중기 Target (2027년)
안정적 CET1비율 기반 ROE·ROTCE 제고	ROE	8.4%	+50bp 이상	9.1%	10%
	ROTCE	9.6%	13.1% 이상	10.3%	11.5%
	CET1비율	13.02%	42% 이상	13.35%	13%+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 추진	주주환원율	40.2%	50.2%	50% 수준	50% 수준
주식수 감축 통한 주당 가치 제고	주식수	499백만	‘속도감’있는 자사주 매입소각	474백만 ^{주)}	450백만
	TBPS	100,096원		109,117원	130,000원

주) 2025년 하반기 결의한 자사주 매입 8,000억원 (2026년 1월 2,000억원 매입) 포함

※ 신한금융그룹의 중장기 지향점은 주주-고객-직원-사회 등 諸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시장 Valuation

2024년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짐.
 하반기를 중심으로 PBR 개선폭 확대되며 총주주수익률은 67%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

PBR·시가총액

대외 요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기업 밸류업 공시
 주주환원 확대 기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환율을 지속, 미-이란 전쟁 등

내부 요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24.7.26)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24.9.24)

'24년 주주환원율 40.2%

자사주 매입·소각 7,000억 + 현금 배당 10,880억

'25년 주주환원율 50% 조기달성

자사주 매입·소각 12,500억 + 현금 배당 12,45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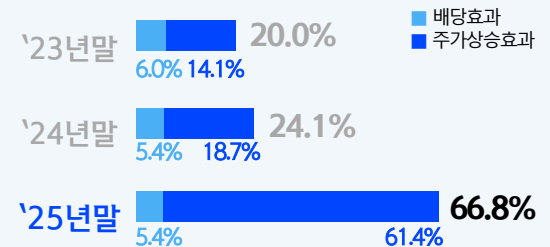
'26년 상반기(예상)

자사주 매입·소각 7,000억

시가총액



총주주수익률 (T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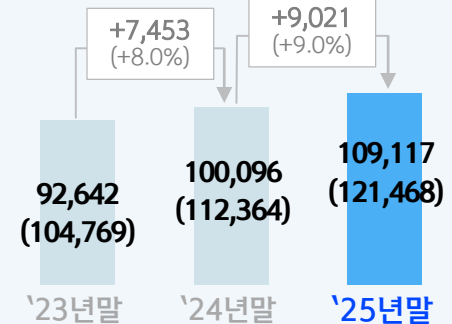


*TSR = (당기말 주가 - 전기말 주가 + 당기 주당배당) ÷ 전기말 주가

주당 순자산가치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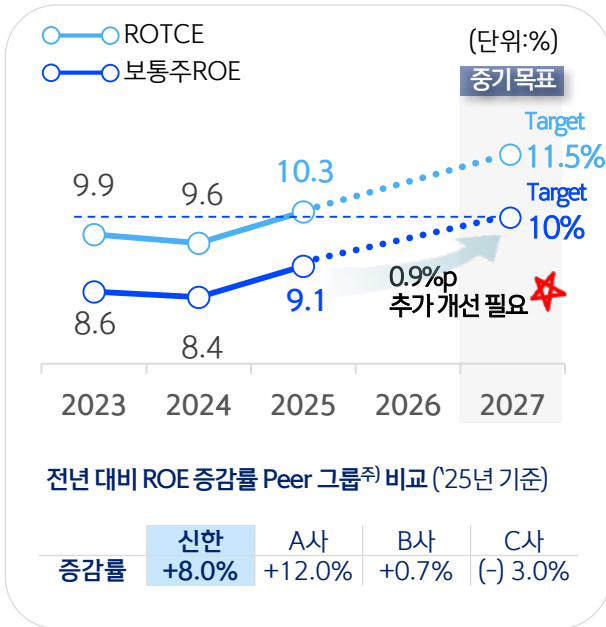
TBPS (BPS) 기준



※ PBR: Price Book value Ratio, TSR: Total Shareholder Return, TBPS : Tangible Book Value Per 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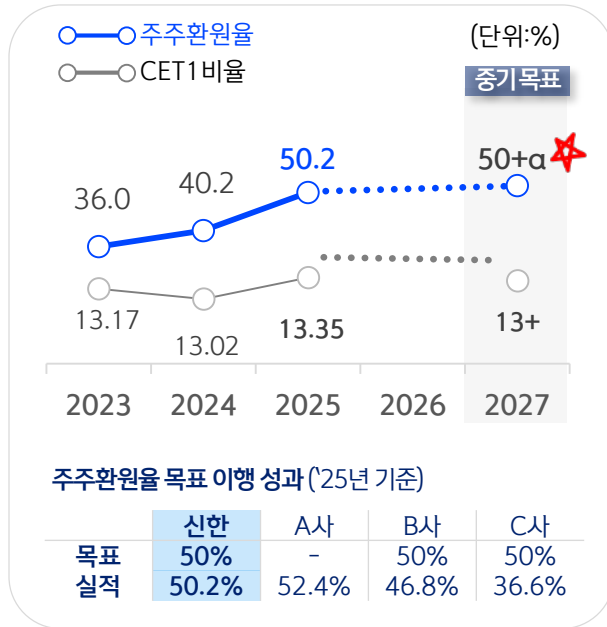
중기 지향점 대비 진행 상황

ROE, ROTCE 현황 **10%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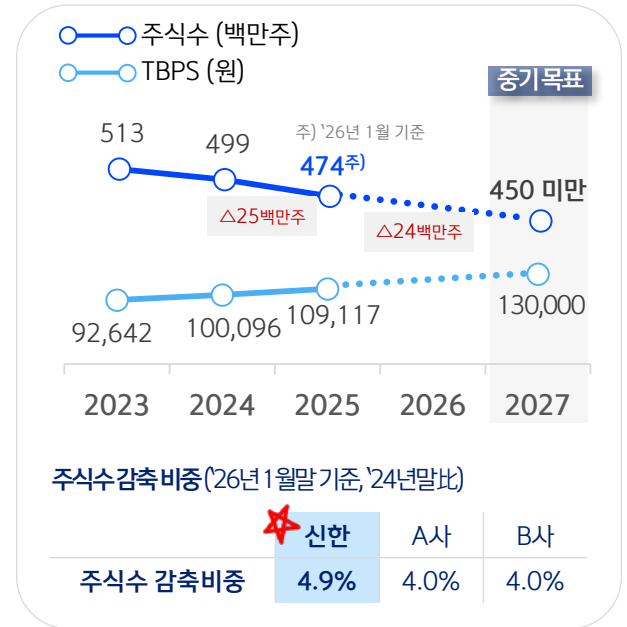
- ROE 전년비 +0.7%p 개선된 9.1% 시현
- Target ROE 10% 대비 +0.9%p 추가 개선 필요
- 비은행의 정상화, 경상수익력 개선 통한 Target 달성 노력

주주환원, CET1 현황 **50% 주주환원**



- 주주환원율 50% 목표 조기 달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비과세배당 기반 마련
- CET1비율도 개선 흐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자본비율 확보

주식수, TBPS 현황 **50백만주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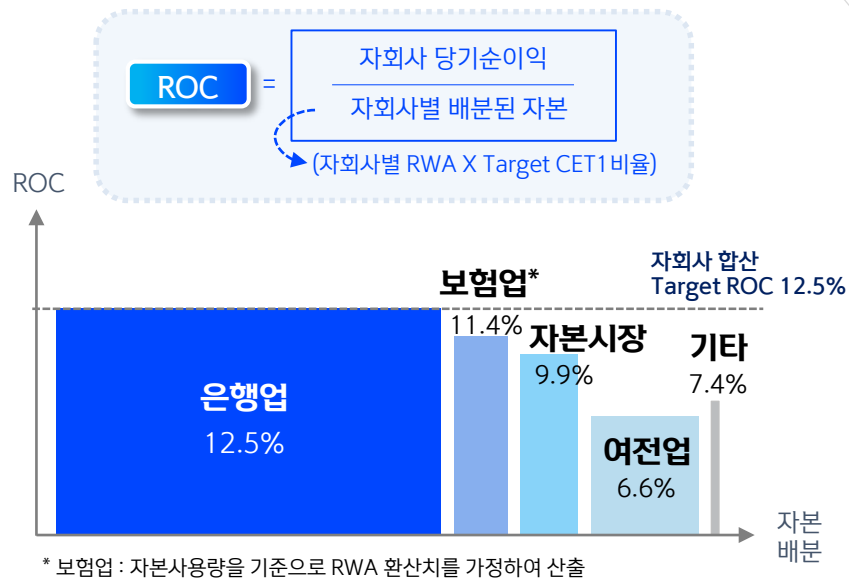
- '26년 1월말 기준 주식수 474백만주, 50백만주 감축 목표 중 25백만주 감축 완료
- 주식수 감축 속도 Peer 그룹(주) 대비 가장 높은 수준 - 감축 비중: 신한 4.9% vs A사 4.0% vs B사 4.0%

주) Peer 그룹 : 국내 주요 은행지주회사이며, DATA는 각 사 공시 참고
 ※ ROTCE = 보통주 당기순이익 / (보통주 자본-무형자산), 보통주 ROE = 보통주 당기순이익 / 보통주 자본

2025년 업권별 ROC 및 RWA 증감 현황

은행은 손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산 성장 및 환율 상승으로 전년 대비 ROC 하락, 비은행업권은 증권 등 실적 개선으로 ROC 상승 RWA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국내 Peer 유사 수준. 향후 비은행업권 수익력 개선과 RWA 관리가 주요 과제

2025년 자회사별 ROC^{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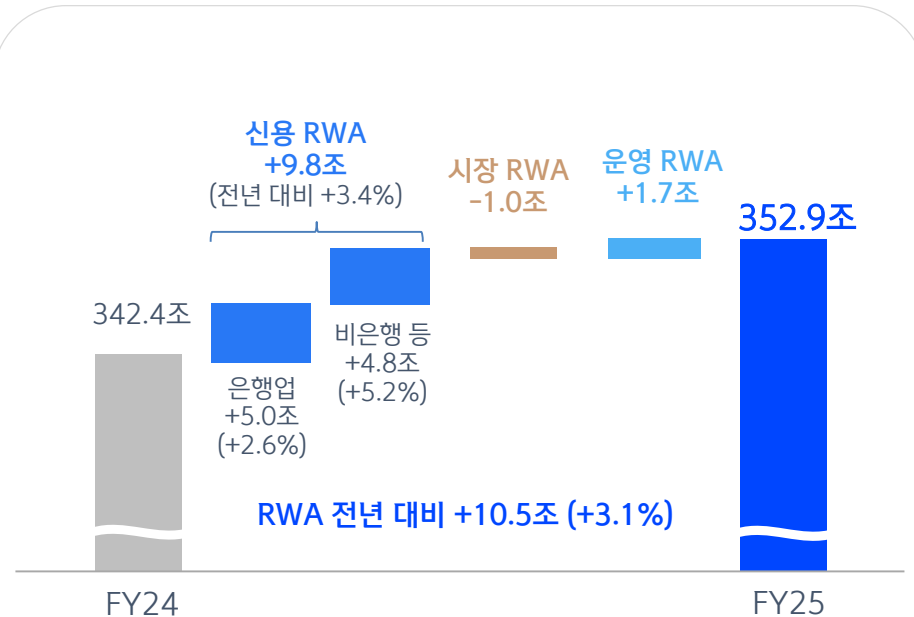


2025년 업권별 ROC 전년 대비 증감률

ROC 전년비	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여전업	기타*
	-0.4%p	-0.4%p	+3.2%p	-1.3%p	+77.6%p

* 기타 : 신한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 총당금 감소효과로 개선

2025년 RWA 증감



2025년 국내 Peer RWA 증감률 비교

RWA 전년비	신한	A社	B社	C社
	+3.1%	+3.3%	+3.5%	-0.2%

주) ROC: Return on Group Capital, 자회사별 배분된 자본 대비 수익성 측정하는 지표로 안정적 CET1기반 유지하면서 ROE 제고를 위한 관리지표

※ 은행업 : 신한은행, 제주은행 / 보험업 : 신한라이프, 신한EZ손해보험 / 자본시장 : 신한투자증권, 신한자산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펀드파트너스 / 여전업 :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 기타 : 이외 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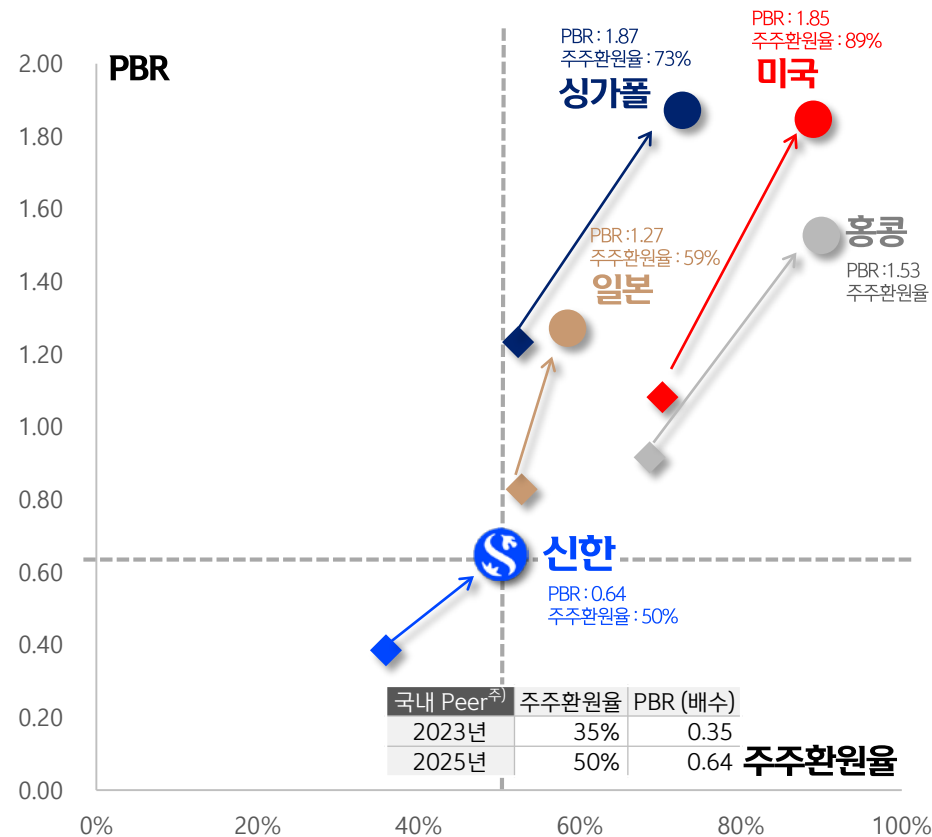
해외 Peer 그룹 비교

국내사 주주환원율, ROE 등 개선 통해 PBR 개선되었으나, 해외 Peer 또한 주주환원율, PBR 큰 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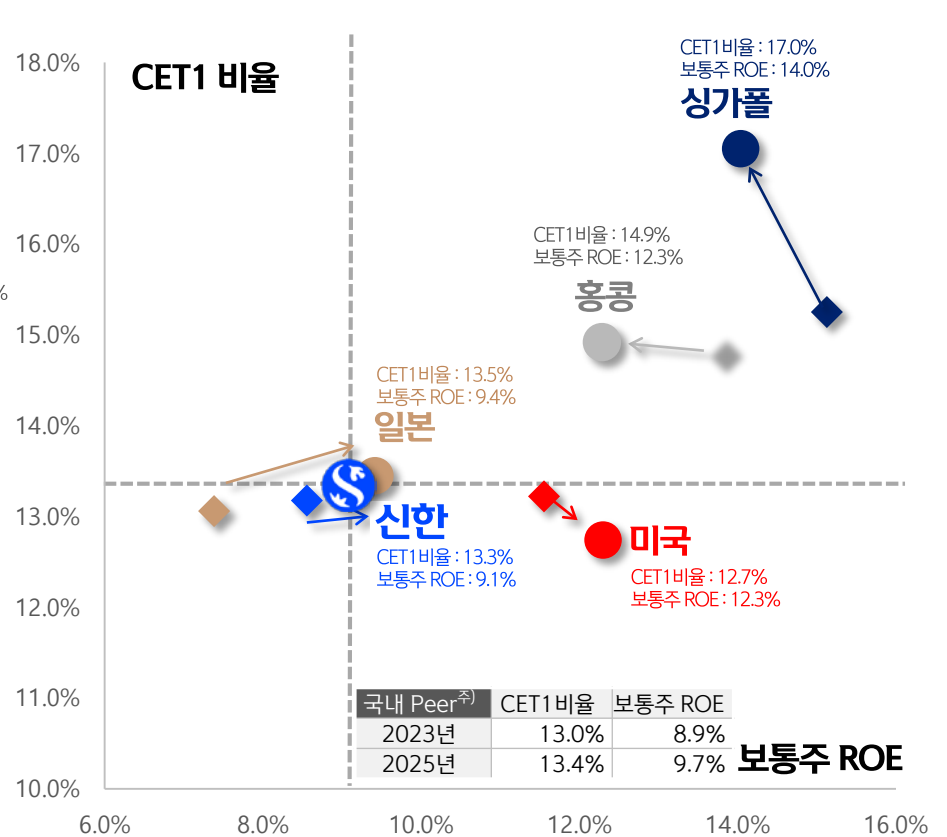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은행지주회사 비교: 각 사 '23년 대비 '25년 기준 비교(타사는 각 사 공시 참고) / 글로벌 금융그룹 비교: 국가별 주요 금융사 평균(출처:Bloomberg/공시)

※ 미국: JPM/GS/WF/BOA, 싱가포르: DBS/OCBC/UOB, 홍콩: HSBC, 일본: MUFG/MZH/SMBC

PBR, 주주환원율 비교 (2023년 → 2025년)



ROE, CET1비율 비교 (2023년 → 2025년)



주) 국내 Peer : 국내 주요 은행지주회사이며, 타사는 각 사 공시 참고

소통 성과

연간 약 500회의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 적극적인 투자자 소통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며, 이사회/CEO 라운드테이블·애널리스트 Day·개인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시장 참여자 별 맞춤형 행사를 통해 시장 소통 강화함

2025년 주요 IR 활동

- '25.5월 이사회 NDR (홍콩, 싱가포르)
- '25.5월 한국거래소 선정 '2025 밸류업 우수기업'
- '25.8월 '상장회사협의회 상법 개정안 대비 전문가 모임' 참여
- '25.8월 개인투자자 대상 밸류업 설명회 개최 (당사 유튜브 채널)
- '25.8월 제주도 애널리스트 Day 개최
- '25.9월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 '25.9월 CEO 라운드 테이블 개최
- '25.9월 한국거래소 'KCMC* 2025' 참여
*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 '25.10월 일본 나고야 재일동포 대상 IR 설명회 참여
- '25.11월 ACGA* '연례 컨퍼런스' 패널 토론 이사회 참여
*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 '25.11월 금융감독원 선정 '2025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 '26.1월 이사회 NDR (런던, 싱가포르)
- '26.3월 이사회 의장 / CEO 주주서신 발송

2025년 투자자 소통 현황

IR 활동 및 공시

	IR 활동					국내공시		해외공시
	합계	주주총회	실적발표	이사회 라운드 테이블	이사회 /경영진 IR 면담	국문 (Dart)	영문 (KRX)	EDGAR (美SEC)
2024	485	1	4	1	73	149	79	57
2025	549	1	4	1	79	152	87	53

- 이사회 중심 IR 활동 계속 / 영문 공시 통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24.1월) 이전 2017년부터 한국거래소 영문 공시 실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개요 ('25.9월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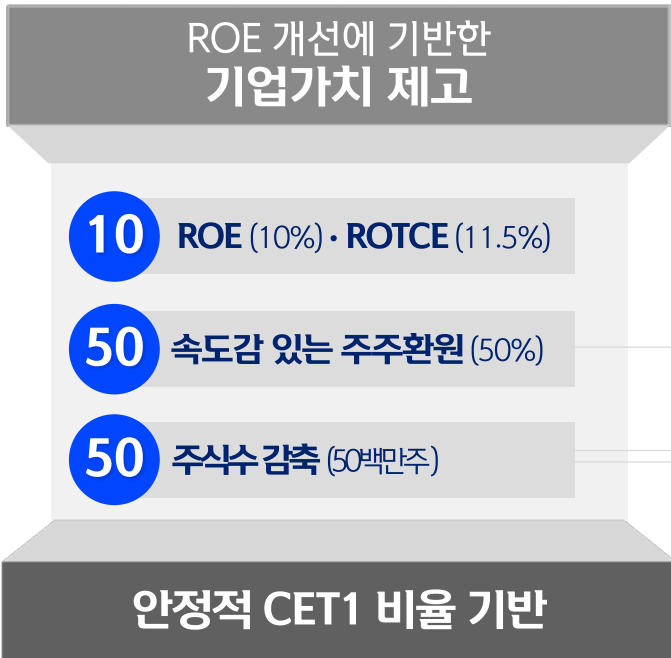
- 발표자 : 신한금융그룹 이사회 7명, 경영진 5명
- 참석자 : 국내외 기관투자자 42개사 (방문 29개, 온라인 13개)
- 주요 논의 사항
 - ① 생산적 금융 확대,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 환경下, 회사의 전략 방향성
 - ② 그룹 CEO 및 경영진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
 - ③ 그룹 CEO 경영승계 절차와 진행 현황, 자회사 CEO 선임 기준 논의
 - ④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및 문화적 내재화 방안

⇒ 투자자 피드백 반영,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개편의 필요성

- ① 신한 Value-Up Target 中 주주환원 목표 달성 등으로 인한 개편 필요성 제기
- ②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우호적 환경 도래
- ③ 2024년 이후 주주환원율의 정상화를 통한 PBR 개선

'24.7 既 제시 Value-Up



고려사항

- 주주 환원 Target 달성, Next에 대한 기대
- 정책·규제 상 배당 우호적 환경
- 배당소득 분리과세/감액배당
- PBR 개선 흐름 지속
- 국내 0.8 ~ 1.0 근접
- Peer 그룹간 차별화 Point 희석
- 국내 금융지주間 차별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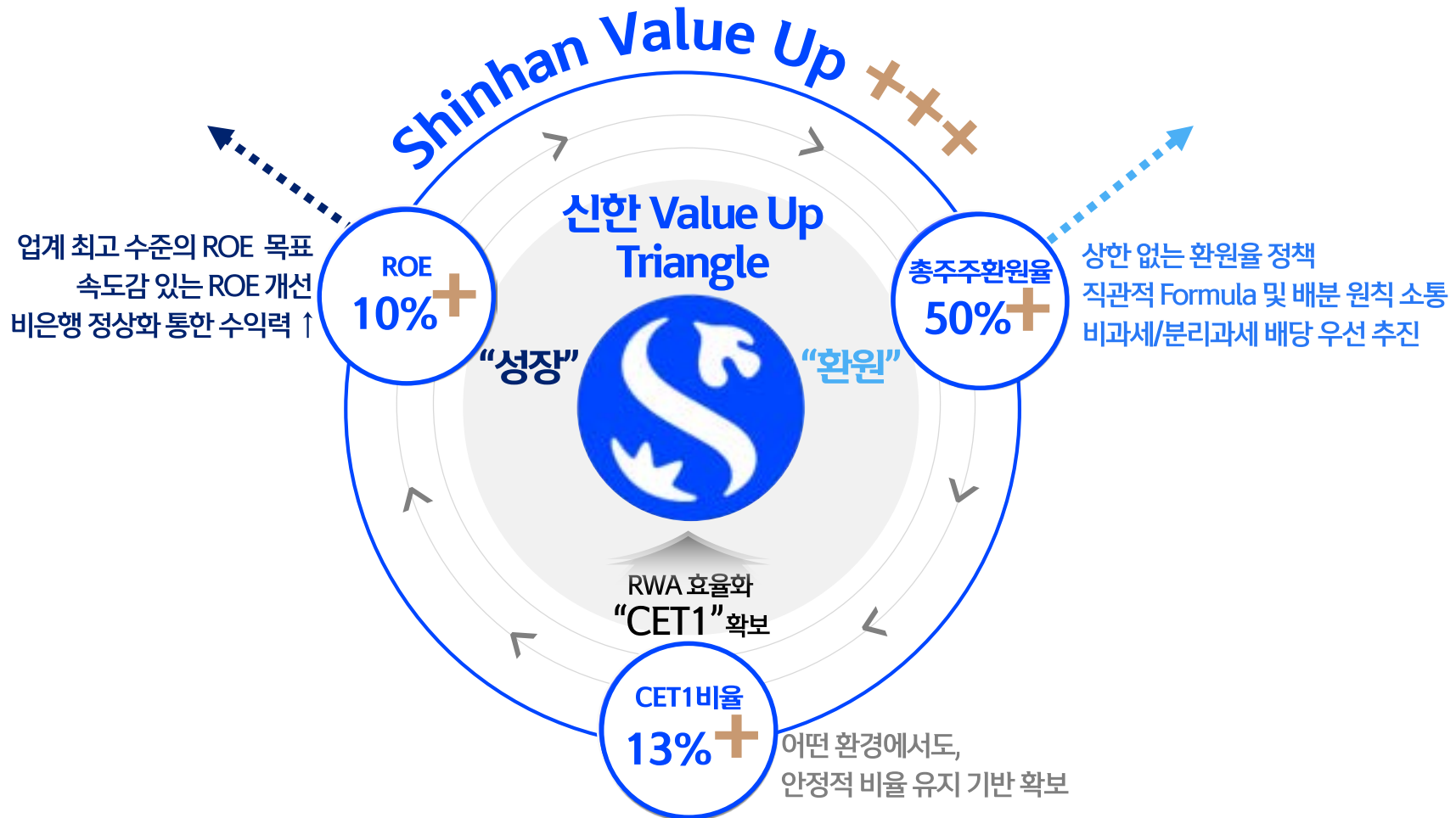
개편 방향성

- 특정시점, 절대 목표보다는 지속가능한 Framework 마련
→ 투명·예측가능한 환원로직 제시
- 규제환경 부합하는 주주환원 Mix
→ 배당 정책 로드맵 제시
- 신한 고유의 Value-Up 방법론 구축
글로벌 금융그룹과 Valuation Gap 축소 지속 추진

신한 Value-Up Triple Plus

① 안정적 CET1 기반, ② 질적 성장을 통한 Double Digit ROE 초과 달성, ③ 자본여력 확보 통한 주주환원 최대화 개념의 신한 Value-Up Triangle (CET1비율 - ROE - 주주환원)을 기본 소통 Framework / Value chain으로 제시

→ CET1 13%+, ROE 10%+, 주주환원 50%+의 Value-Up Triple Plus를 중기 지향점으로 제시



신한 Value-Up 지향점 상세

안정적 CET1비율 기반 위에, 효율적 자본배치를 통한 기초체력(ROE) 개선 및 주주환원 추가 확대를 New 지향점으로 설정

- 향후 3년간 ① ROE 10~12% 구간, ② 상한 없는 주주환원을 정책 추진 (50%+), ③ 비과세배당 중심 정책을 중기 Target으로 설정
- '27년 제시된 Target은 달성 여부에 대해 지속 소통할 예정

New 지향점 - 신한 Value Up+++

~'28년까지의 가이드런스

'24~'25년 “주주환원 정상화 구간”

	'24년	'25년
ROE	8.4%	9.1%
주주환원율	40.2%	50.2%
CET1비율	13.02%	13.35%
주식수 감축	26백만주 감축 완료	

'26~'27년 “ROE 본격 회복구간”

既계획 '27년 Target : 10-50-50

既계획 '27년 Target

ROE	10%
주주환원율	50%
CET1비율	13%+
감축주식수	50백만주

- +0.9%p 개선 필요
- Target 달성
- 안정적 비율 관리 중
- 추가 +24백만주

10%+

10~12% 구간 Target

50%+

ROE < COE 구간 전년비 점진 개선 상한없는 목표 설정·Formula 제시

13%+

규제·시장 환경 고려 13.0 ~ 13.4% 구간 관리

주주환원 Mix 정책

비과세·분리과세배당 우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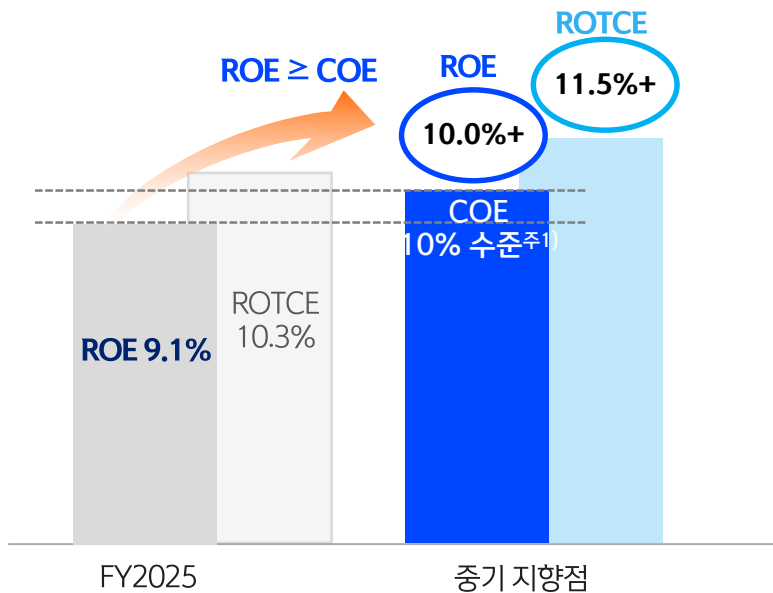
既 계획대비 큰 변화는...

- [Target] 병렬방식의 직관적인 Target → ROE-주주환원을 위한 유기적 자본배치 및 환원정책 Target 제시
- [지향점 제시 방법론] Spot 시점 Target → 매년 지향점 Gap 분석 후 3개년 Target 가이드런스 Update

지향점 설정 상세_① ROE 10%+

'26년 자본시장 중심, '27년 여전업 중심 수익력 개선 등을 통해 ROE 10% 달성 계획 수립
 '27년까지 당기순이익 10% 이상 성장 계획이며, 이후에도 "손익증가율 > 자본증가율" 통해 ROE 개선 계획

COE(Cost of Equity) 보다 높은 ROE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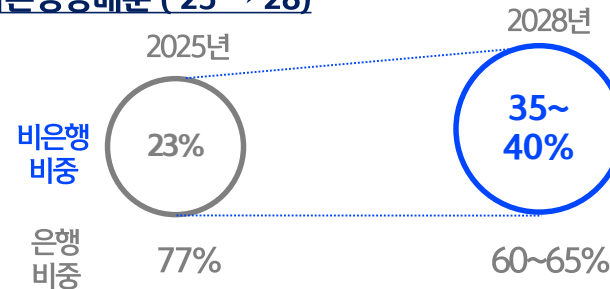


주1) COE(Cost of Equity) 산출시 ①내부 자체 산출 결과 및 ② 주요 해외증권사 산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출.
 내부 산출시에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활용하여 산출 중
 - 2026년 적용 COE = 10.0% 유지 (내부산출값 = 8.0%)
 - [COE] 8.0% = Rf + Rp × 베타
 - [Rf] 무위험이자율, 2.8% 국고채 10Y의 1년 평균
 - [Rp] 시장위험프리미엄, 5.5% 설립 이후 KOSPI 위험프리미엄 평균
 - [베타] 시장대비 민감도, 0.94 설립 이후 KOSPI 대비 신한지주 평균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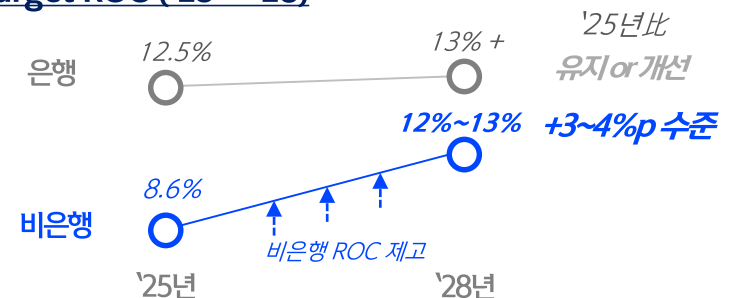
[Q] Target ROE는 달성가능한가?

ROE 10%+ α를 위해 은행의 안정적 ROE 기본축 위에 자본시장 → 여전업 등의 비은행 수익력 개선을 통한 ROE 개선의 기울기를 키워 나가는 계획 수립

자본성장배분 ('25 → '28)



Target ROC ('25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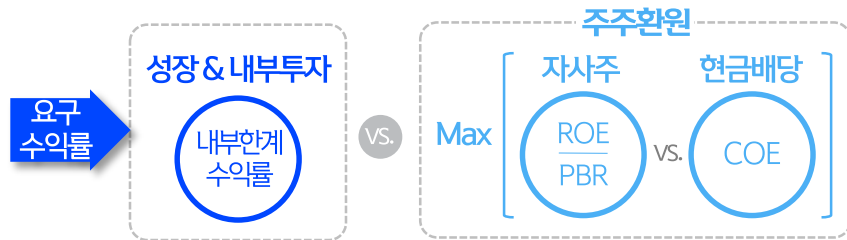


지향점 설정 상세_② 주주환원율 50%+

Target ROE 달성을 위해 성장 및 주주환원 요구수익률에 따라 자본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ROE < COE 인 경우 주주환원 점진적 증가 방향. 직관적인 주주환원율 제시를 위해 ROE 및 성장을 고려한 Formula 제시 및 가이드스 소통 예정

성장 vs 주주환원 자본배분 원칙

성장 vs 주주환원 간 요구수익률을 비교한 자본 배분 원칙



→ ① 내부한계수익률 vs ② Max(ROE/PBR, COE)를 비교하여 내부한계수익률이 큰 경우 ① > ② 성장에 우선 배분하고, 주주환원수익률이 큰 경우 ① < ② 환원에 우선 배분

단, COE · ROE 고려한 주주환원 우선 고려

→ 전사 ROE가 COE보다 낮은 구간에서의 주주환원율은, 기본적으로 "전년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시] '25년 주주환원율 50.2%, ROE < COE시 '26년 50.2% + α

ROE · 성장률을 고려한 주주환원 Formula

주주환원율 = 1 - (성장률 / Target ROE)의 큰 개념으로 결정

$$\text{주주환원율} = 1 - \frac{\text{성장률 (자본 or RWA)} \pm \text{buffer}^{\text{주1)}}}{\text{Target ROE}} + \alpha^{\text{주2}}$$

※ 실제 적용되는 자본, 시점 차이 등 실질 차이는 있으나, 직관성 측면에서 큰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활용

※ M&A 등 EPS Accretion* 위한 추가 자본 소요 발생시는 사전 소통 예정

* EPS Accretion: 기업이 M&A 등 재무활동을 한 후 EPS(주당순이익)가 전보다 높아지는 현상

주1) 대내외 환경 변화 또는 일시적 증감 요인 등을 고려, 이사회 등 내부 결정에 따라 설정

주2) 자본 또는 RWA 효율화를 통한 재원 중 추가 환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정 및 소통

통상 성장률 계획은 GDP 성장률 수준 계획 (현재 4~5%)

※ 주주환원율 계획 예시

	2025	2026	2027	2028
가 성장률/ROE		5.1%/10%	4.8%/10%	4.7%/11%
정 CET1 증감		Δ8bp(환원율 4%)	-	-
→ 주주환원율	50.2%	1-(5.1/10)+4% =53% or 50.2%+α	1-(4.8/10) =52%	1-(4.7/11) =57%

※ 본 자료는 예시이며, 실제 환원율은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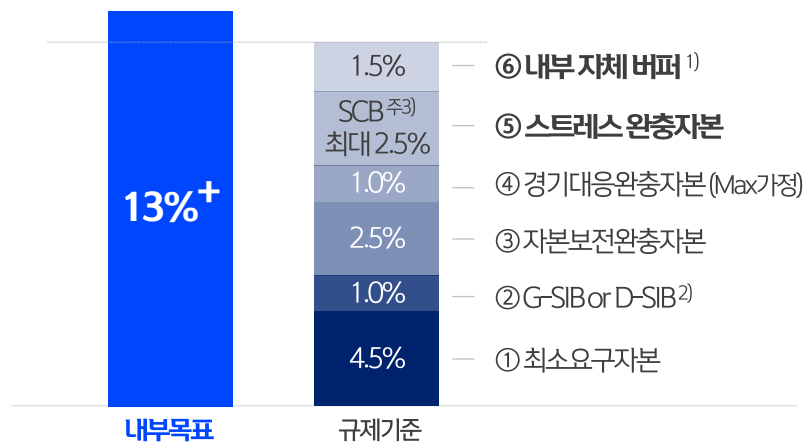
지향점 설정 상세_③ CET1 13%+

규제·글로벌·거시환경 대비 충분한 CET1 여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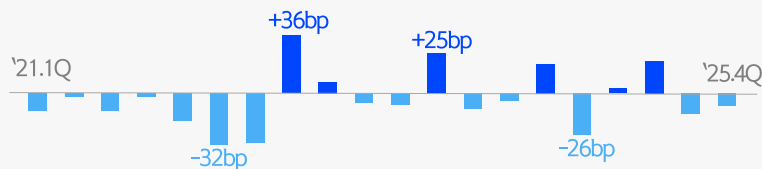
CET1 안정성 확보 후, 초과 자본여력은 환원 또는 성장 중 어디에 활용할지 사전 소통 예정

現 CET1 관리 기준

- Macro 환경 변화에 따른 CET1 비율 변동성을 감안하여, 규제 기준 (①~④) 을 상회하는 내부목표 (13%+) 로 충분한 자본 여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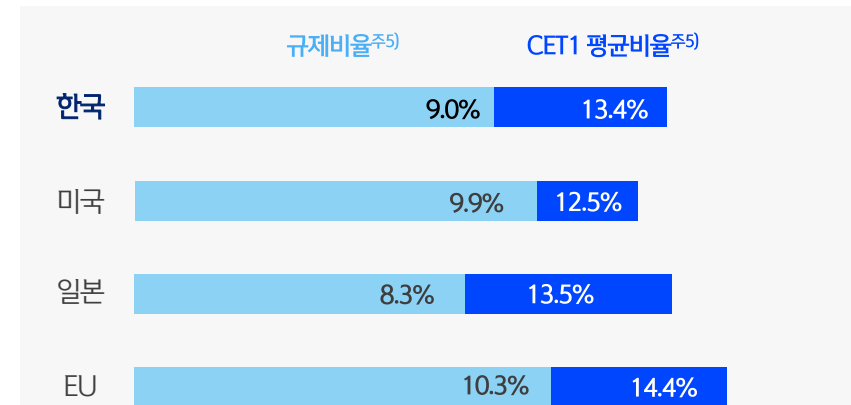
분기 중 금리·환율 변동에 따른 CET1 비율 영향
5년 기준 최대 약 ±36bp 수준 (3년 기준 ±26bp)



[참고]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주4)}과 비교 ('25년말 기준)

- 국내 주요 금융기관 CET1 비율은 글로벌 수준의 안정적 자본 Buffer 유지

* 자본 Buffer (CET1 - 규제비율): 美 대비 +1.8%p, 日 대비 -0.8%p, EU 대비 +0.3%p



- 한국** 손실흡수능력 확보 목적 규제비율 상회하는 가이드 비율로 관리
- 미국** Stress Test 後 규제비율 초과 자본 자율적 주주환원
- 일본** 한국 대비 규제비율 낮은 수준이나, CET1 비율 수준은 한국과 유사
- EU** Stress Test 결과 고려, 은행별 추가 자본(Pillar 2 Guidance) 적립 권고

주1) 금융위기 수준 환경변화 대응, M&A 등 전략 추진을 위해 당사 자체 설정한 버퍼
주2) D-SIB or G-SIB: 국내 시스템적 주요 은행 또는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 은행 지정에 따른 추가 확보 필요 자본
주3) Stress Capital Buffer: 매년 평가를 통한 추가 자본비율 부과

주4) 한국: 신한/KB/하나/우리, 미국: BOA/BNY Mellon/Citi/GS/JPM/STT/WFC, 일본: MUFG/MZ/H/SMFG, EU: BNP Paribas/CA/DB/Commerzbank/Santander/Intesa Sanpaolo (출처: 각 국가별 감독당국 규제 보고서 및 공시 참고)
주5) CET1 비율 및 규제비율은 주4)의 국가별 대상 금융기관 평균 비율 활용

실행방법론_① PBR-ROC Logic Tree

“신한”만의 PBR-ROE 개선을 위한 핵심 방법론은 “ROC” → 손익/(RWA x 13%)

- 그룹-회사-사업그룹별 ROC 산출 및 성과관리→평가→보상에 Align하여 반영

→ PBR = ROC(수익력/효율성/레버리지) x 자본소진율 x PER 등으로 구분하여 과제 관리



$$PBR = PER \times ROE = \text{PER} \times \text{ROC} \times \text{자본소진율}$$

$$= \frac{\text{시가총액}}{\text{당기순이익}} \times \frac{\text{당기순이익}}{\text{경비차감전 이익}} \times \frac{\text{경비차감전 이익}}{\text{총자산}} \times \frac{\text{총자산}}{\text{RWA} \times 13\%} \times \frac{\text{RWA} \times 13\%}{\text{자본}}$$

① PER
② 순이익률
③ 총수익률
④ Leverage
⑤ 자본소진율

※ ROC (Return On Group Capital)

규제자본과 회계자본을 잇는 Bridge, 규제 자본비율을 준수 & ROE 제고 역할

직관적인 자본효율성 관리
신한만의 ROE 제고 핵심 구동체계

실행 방법론_② 주주환원 Mix 정책

“신한”만의 방식으로 현재 시점에서 주주환원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Mix 정책 수립

1 배당 관련 우호적인 환경을 최대한 활용, **3년간 비과세 배당 우선 실시*** (한도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경 가능) *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or 비과세 요건 충족 필요

2 PBR 고려한 자사주 배당 Mix 원칙



자사주 요구수익률 (ROE/PBR) 과 배당 요구수익률 (COE)을 비교,
자사주 요구수익률이 클 경우 자사주 中心, 배당 요구수익률이 클 경우 배당 中心으로 주주환원 정책 Mix

* PBR에서 주식수 감소에 따른 미래 주당 현재가치 증가를 의미함. 실질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직관성을 위해 $ROE/PBR = (1/PER)$ 사용

3 신한만의 분기 균등배당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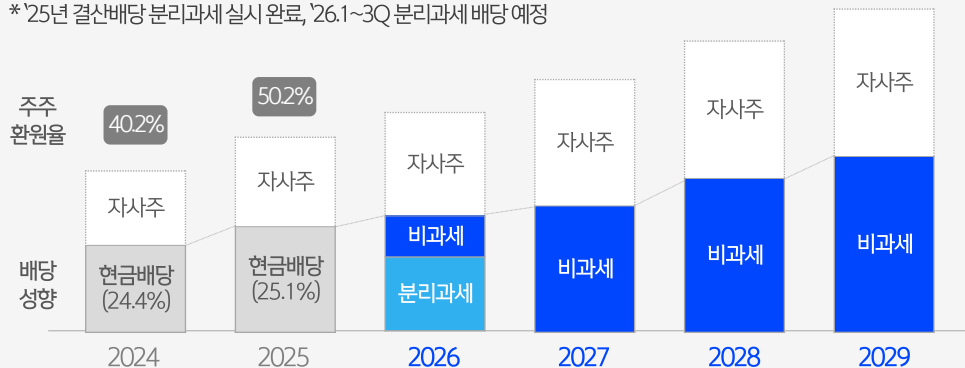
4 DPS + 배당규모는 지속 확대 (시장 금리 상황 고려)

5 총주주환원을 중 배당 후 잔여분 모두 Buy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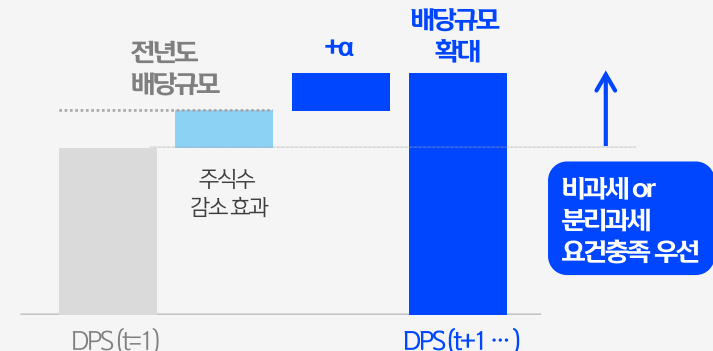
※ 상기 정책은 경기 상황 및 규제 변화, 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비과세 / 분리과세 배당 Roadmap 예시

* '25년 결산배당 분리과세 실시 완료, '26.1~3Q 분리과세 배당 예정



DPS + 배당규모 확대 Road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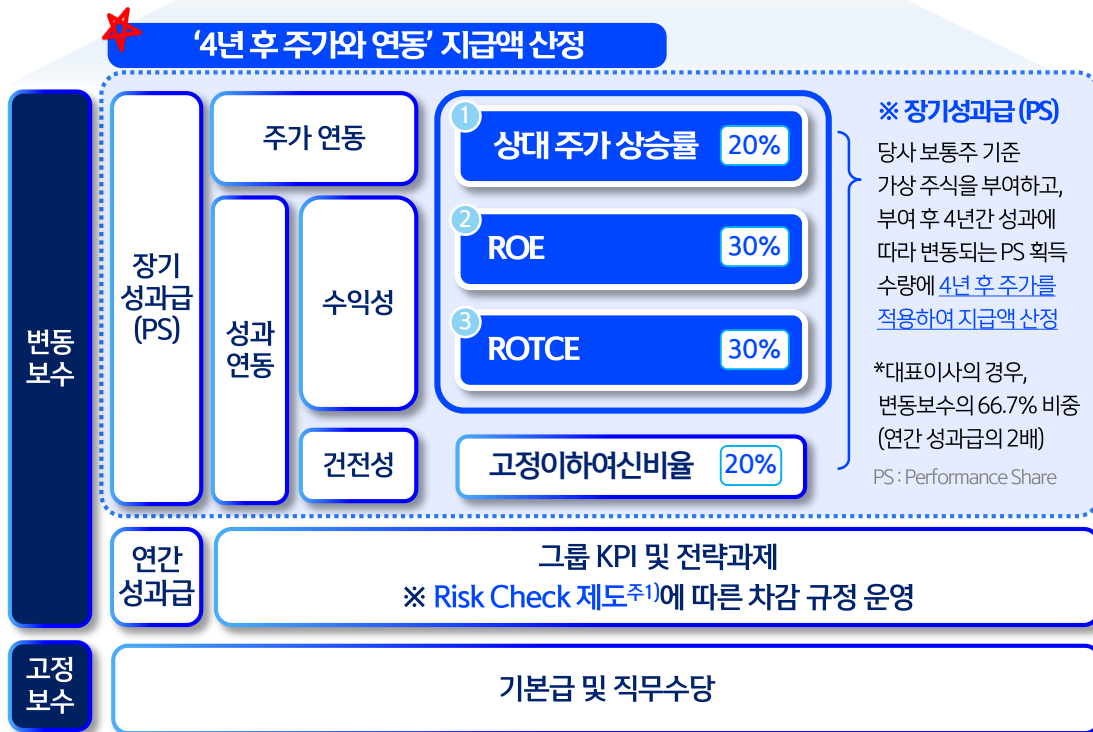


실행방법론_③ 평가보상과 연계

평가 및 보상 체계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연동하여 설계

경영진 보수체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Align
장기 성과급의 80% 비중 (①+②+③)



※ Claw-back 제도 운영 (성과 보수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의 오류로 인해 정정될 경우 既지급된 성과급을 환수)

주1) Risk Check 제도: 리스크(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 중대한 이슈 발생시 성과보수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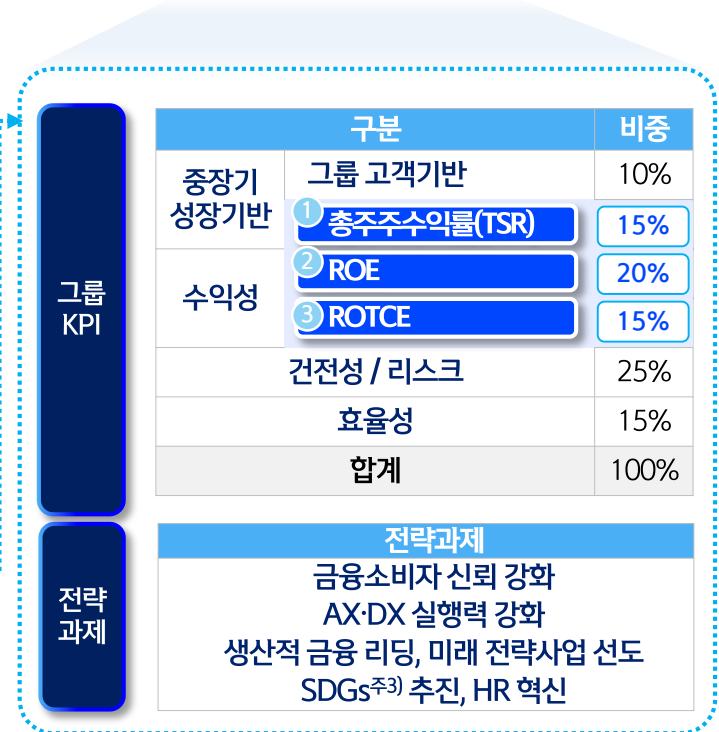
주2)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주3)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 상기 내용은 2026년 3월 보수위원회 결의 기준임

성과평가체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Align
그룹 KPI^{주2)}의 50% 비중 (①+②+③)



※ 성과평가 가중치는 대표이사의 경우 그룹 KPI 70%, 전략과제 30% 반영

소통 강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공시를 활용한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고, 이사회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자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Multi 커뮤니케이션 확대 계획

시장 소통 강화

1. 기업가치 제고 이행 경과 소통 강화

- ✓ 이사회/경영진 중심 투자자 Engagement 통해 이해관계자와 Multi 커뮤니케이션 확대 (연간 500회 수준의 IR 활동 지속 추진)
- ✓ 매 분기 실적발표회/공시 활용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적극적 소통

2. 밸류업 정책 확산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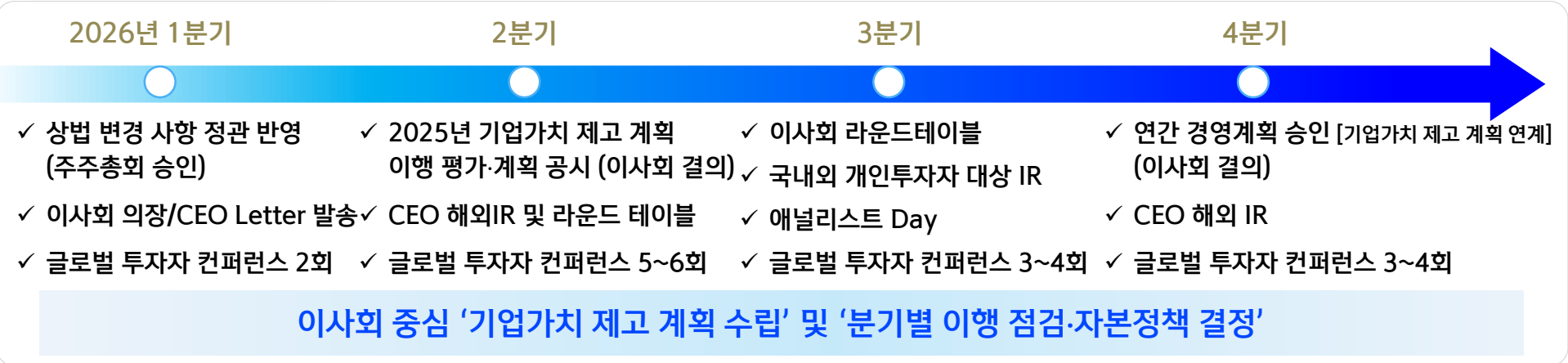
- ✓ 당사 기업 고객 대상 '기업 밸류업 컨퍼런스' 추진 통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정책 확산 노력
- ✓ 유관기관(금융당국, 거래소) 협업 통한 밸류업 정책 확산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3. 개인투자자 소통 확대

- ✓ 개인투자자 대상 당사 주관 온라인 설명회 정례화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전파 확대
- ✓ 국내외 증권사 협업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인프라 확대 및 소통 강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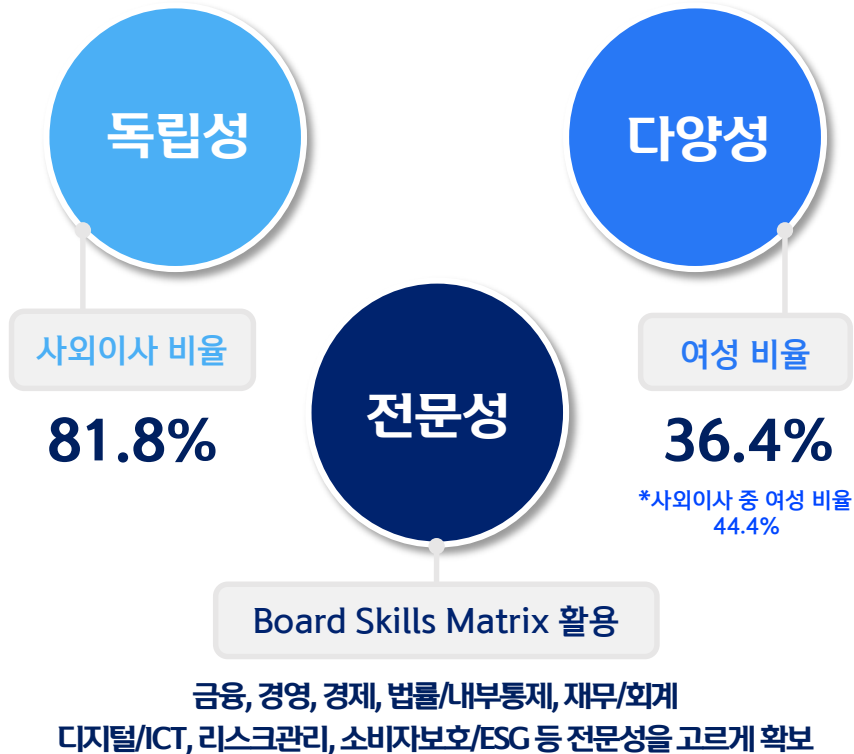
이사회/경영진 IR 지속·확대

- 이사회/경영진 중심 IR 활동 지속, 확대 추진
- 국내외 개인투자자 대상 IR, 애널리스트 Day 등 다양한 투자자 대상 맞춤형 IR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강화



지속가능한 신한을 위한 지배구조 기능 강화

이사회 구성의 주요 특징 (26년 3월 주주총회 이후 기준)



독립성 강화

- ①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을 의무화하여 운영 중
- ② 자경위¹⁾, ESG전략위를 제외한 6개 이사회내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③ 자경위를 제외한 7개 이사회내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

다양성 확보

- ①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 44.4%로 국내 금융회사 최고 수준을 유지
- ② 연령에 있어서도 5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이 각각 3명으로 구성되어 경륜의 조화를 확보
- ③ 타사 사외이사 경험, 조직 운영 경험(CEO, 경영진)을 지닌 사외이사를 고루 선임하여 이사회 논의의 저변을 확대

전문성(집합적 정합성) 제고

- ① 이사회 전문성 강화·관리를 위해 '24년말 Board Skill Matrix를 개선·변경 (전문성 항목 재분류 및 경영 현안 관련 전문성 추가 반영, 전문성 판단 기준 명확화 등)
- ② 집합적 정합성의 기준 또한 마련하고 주기적(연 1회) 점검과 이에 따른 자발적 보완을 통해 이사회 전문성을 제고 중

투명한 경영승계 프로그램

- ① 후보군 육성·관리
(1) 주요 자회사 CEO 등 내부 인재 중 '육성후보군'을 선정하여 상시 육성
(2) 年1회 회추위²⁾에서 내·외부 후보를 망라한 '승계 후보군' 선정 및 관리
- ② 경영승계 프로세스
(1)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관리 절차 개시
(2) 승계 후보군 대상 심층 심의 → 이사회/주주총회를 거쳐 선임 확정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³⁾」에서 제시하는 핵심지표 중 93.3%를 준수하고 있음 (15개 핵심지표 중 14개 준수)
 - '24년 비 내부감사기구의 경영진을 제외한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운영을 분기별 1회로 개선('25년)하였으며, 이를 유지 중임
 - 핵심지표 중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항목 관련, 당사는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제출 즉시 소집 공고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주총 3주전 공고)

주1) 자경위: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주2) 회추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주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한국거래소 제정

 **신한금융지주회사**